

# 王安石的 交友\*

吳憲必\*\*

## <목 차>

- I. 서론
- II. 交友之道
- III. 交友關係
  - 1. 孫侔
  - 2. 曾鞏
  - 3. 王雱
  - 4. 王回
- III. 결론

## I. 서론

王安石은 北宋 시대의 詩人이요 唐宋八大家에 속하는 文章家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개혁론을 제창한 思想家이자, 新法이라는 혁신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한 爲政者였다. 이처럼 다양한 삶의 행로에 따라 그에 대한 기존의 연구도 爲政者 · 文學家 · 思想家로서의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爲政者라는 측면에서의 연구는 두 차례나 宰相을 역임하면서 추진하여 波瀾萬丈한 波紋을 일으켰던 新法이라는 개혁정책의 功過를 평가하고 爲政者로서의 면모를 재조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왜곡되게 평가되는 경우도 많았던 게 사실이다. 思想家라는

\* 본 논문은 2005학년도 덕성여자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德成女子大學校 中語中文學科 教授

측면에서의 연구는 北宋 당시 張載가 대표하는 關學, 程顥·程頤가 대표하는 洛學, 蘇軾이 대표하는 蜀學 등 다양한 思想潮流 속에서 功利主義를 주창한 사상가로서의 그에 대한 평가가 主流를 이룬다. 文學家라는 측면에서의 연구는 그의 문학과 작품 자체를 분석함으로써 그의 문학적 특징을 탐색하고 北宋 文壇에서의 位相과 후대 문학에 끼친 영향을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세가지 측면의 연구 방향과는 달리, 먼저 그의 交友之道에 대한 관점을 살피고, 주로 그와 가장 절친한 交友關係를 유지했던 몇몇 朋友들과 주고 받은 書信과 故人이 된 朋友를 哀悼하며 지은 墓誌銘 등을 통하여 知己之友와의 交友關係를 살펴봄으로써 그의 진정한 인간적 면모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 II. 交友之道

王安石은 인생에 있어서 참된 친구와의 交友를 매우 중요시하고, 올바른 交友之道를 설정하여 진정으로 交感하거나 자신의 결점을 기탄없이 지적해줄 수 있는 참된 朋友와의 교유를 진심으로 원했다.

먼저 <與孫莘老書>에 주목하여 보자.

오늘날 세상 사람들 중에 서로 알고 지내는 자들 가운데서 옛날의 친구들처럼 절차탁마하는 자를 보지 못한 것은 아마 좋은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적기 때문이며, 다행히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게 잘해주려는 뜻이 있어도 교유하는 사람은 오히려 속이는 것이라 여겨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풍조는 심히 우려할 만한 것입니다. 나처럼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 비록 도리가 있다고 여겨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선생께서 좋은 말로 나를 대해주십시오. 아직 좋은 말을 해주시지 않는 것은 말을 할 만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입니까? 선생조차 이렇게 하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또 바랄 수 있겠습니까? — 옛날의 사람들은 모름지기 친구를 통해서 성취하지 못한 경우가 없습니다. 무릇 친구가 없으면 자신의 잘못을 듣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다. 하물며 저는 현명하지 못하며, 배운 바는 세상에서 유용할 수 있는 바가 아니며, 맡은 바는 이 몸이 해낼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참고서 구차하게衣食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바람을 저버리고, 큰 잘못이 반드시 날마다 있으니 방법을 강구하여 스스로 벗어나고자 하오니 선생께서 깨우쳐주길 바랍니다. --- 1)

莘老는 孫覺의 字이며, 孫覺은 胡瑗의 수제자로 進士에 급제하여 神宗 연간에는 右正言 · 知通州 등의 관직을 거쳐 熙寧 2년에는 知諫院 · 知審官院에 발탁되었다. 그 후 靑苗法에 반대하는 바람에 王安石의 노여움을 사서 貶謫되었다가 哲宗 연간에 복직되었다. 王安石에게 貶謫당한 그였지만, 安石이 은퇴하여 鍾山에 은거하고 있을 때, 여러 차례 安石을 방문하였고 安石의 死後에는 弔文을 쓰기도 하였다.<sup>2)</sup>

이 글은 神宗 嘉祐 3년(1058), 王安石이 江東提點刑獄 시절에 쓴 것으로,<sup>3)</sup> 먼저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切磋琢磨하는 것이 부족한 世態를 한탄하면서, 진정한 친구라면 상호간에 있어서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 자신의 잘못을 기탄없이 지적해주어야 한다는 ‘交友之道’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上司로서의 신분을 떠나서 참된 친구 관계를 맺고자 갈망하는 뜻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다음의 <答王景山書>에서는 학문과 德行을 兼備한 자와 親交를 맺으려는 강한 의지가 표출되고 있다.

저는 어리석어서 스스로 능력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만, 오로지 옛사람의 학문을 배우고 천하에서 친구를 구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문장을 들으면 곧 구하여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무릇 친구를 사귄데 감히 잠시

1) 《王臨川全集》(臺北, 世界書局, 1988) 484쪽: 今世人相識, 未見有切磋琢磨如古之朋友者. 蓋能受善言者少, 幸而其人具有善人之意, 而與游者猶以爲陽不信也. 此風甚可患. 如某之不肖, 雖不爲有道, 計足下猶當以善言處我, 而未嘗有善言見賜, 豈以爲不足語乎? 足下尙如此, 復何望于今世人也! --- 古之人, 未有不須友以成者. 蓋無朋友, 則不聞其過, 最患之大者. 況某之不肖, 所學者非世之所可用, 而所任者非身之所能爲, 忍心拂性, 苟取衣食, 而冒人之寄屬. 其大過宜日日有, 方理稽求可以自脫, 冀足下時見諭也.

2) 《宋史》卷·344 〈孫覺列傳〉 참조.

3) 李壁注, 李之亮補箋, 《王荊公詩注補箋》(巴蜀書社, 2002. 1) 254쪽, 〈別孫莘老〉題注云: 介甫後自群牧出廬江東, 莘老時猶在太平. 公集有〈與莘老〉一書, 論朋友切磋及鹽稗子事, 亦可見二公情分始末嘗不同, 後卒以論新法故異耳.

라도 소홀하지 않았으니, 그 뜻이 어찌 문장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 문장을 읽으면 모름지기 그 뜻이 지향하는 바를 얻게 됩니다. 그 문장이 옳으면 또 그 본질을 구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곧 선택하여 친구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의 명성을 듣고 또한 선생님의 문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뜻밖에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보내주시고 또 간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행운입니다.

書信中 歐陽永叔, 尹師魯, 蔡君謨<sup>4)</sup> 등과 저를 비견하셨습니다. 이 오늘날 賢人이라 일컫는 사람들은 저와 비견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께서는 또한 江南의 사대부들 중에 문장에 뛰어난 자가 없다고 하였는데, 李泰伯·曾子固<sup>5)</sup>는 豪傑로서 저는 그들과 교제를 맺었습니다. 江南에 사대부가 매우 많은데도, 생각컨대 선생께서는 두루 알지 못하시면서 어찌, 德才를 겸비하고 있으면서도 閉門隱居하여 스스로 세상에 드러내지 않는 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두 사람(李泰伯·曾子固)을 가지고 말한다면 더욱 안될 소리입니다. 하물며 저같은 사람을 어찌 언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十戶쯤 되는 조그만 마을에도 반드시 나처럼 忠信한 자는 있다.”<sup>6)</sup> 고 하였습니다. <sup>7)</sup>

景山은 王開祖의 字이며, 浙江 永嘉 사람으로, 皇祐 5년(1053) 進士에 급제하였으나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주로 著述과 講學에 주력하였다.<sup>8)</sup> 또한 南宋의 陳謙으로부터는 宋代에 있어서, 程頤 이전에 道學을 제창한 인물로 높이 평가받기도 하였는데, 그는 道學의 道統을 闡明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저서를 남겼다.<sup>9)</sup>

4) 歐陽永叔은 歐陽修를 가리키며, 永叔은 그의 字임.

尹師魯는 北宋文學家인 尹洙를 가리키며, 師魯는 그의 字임.

蔡君謨는 北宋書法家인 蔡襄을 가리키며, 君謨는 그의 字임.

5) 李泰伯은 北宋의 개혁사상가인 李觀을 가리키며, 泰伯은 그의 字임.

曾子固는 曾鞏을 가리키며, 子固는 그의 字임.

6) 《論語·公治長》.

7) 《王臨川全集》494쪽: 某愚不量力, 而唯古人之學, 求友於天下久矣. 聞世之文章者, 輒求而不置. 蓋取友不敢須臾也, 其意豈止於文章耶? 讀其文章, 庶幾得其志之所存. 其文是也, 則又欲求其質, 是則固將取以爲友焉. 故聞足下之名, 亦欲得足下之文章以觀. 不圖不遭而惠賜之, 又語以見存之意. 幸甚, 行甚. 書稱歐陽永叔, 尹師魯, 蔡君謨諸君以見比. 此數公今之所謂賢者, 不可以某比. 足下又以江南士大夫爲無能文者, 而李泰伯, 曾子固豪士, 某與納言. 江南士大夫良多, 度足下不徧識, 安知無有道與藝, 閉匿不自見於世者乎? 特以二君概之, 亦不可者. 況如某者, 豈足道哉? 恐傷足下之信. 而又重某之無狀, 不敢當而有也. 孔子曰: “十室之邑, 必有忠信如丘者.”

8) 《宋元學案》卷六 참조.

9) 陳謙, 《儒志學業傳》: 當慶曆、皇祐間, 宋興未百年, 經術道微, 伊洛先生未作, 景山獨能研精覃思, 發

이 글에서 王安石은 ‘문장은 작가의 추구하는 뜻이 담겨져 있으므로, 그 문장을 보면 그 사람의 됴됨이를 알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王安石에게 있어서 古文의 창작 능력과 儒家之道의 추구하고 실천이 朋友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문장의 經世致用을 강조한 그의 文章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王安石은 “무릇 文이라고 하는 것은 뜻(志)을 말하는 것이다.<sup>10)</sup>” 또는 “저는 선비가 숭상하는 것은 뜻(志)이며, 뜻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道이므로 만일 聖人에 부합되지 않은 즉 모두 道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천하의 英才만이 이것에 같이할 수 있습니다.”<sup>11)</sup> 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또한 “江南의 사대부들 중에 문장에 뛰어난 자가 없다고 하였는데, 李泰伯 · 曾子固는 豪傑로서 저는 그들과 교제를 맺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江南의 士大夫를 卑下하는<sup>12)</sup> 王景山の 견해에 완곡하게 반박하고 있다. 사실상 李觀은 문장가 · 개혁사상가이며, 曾鞏도 人格과 能文의 兼全을 강조한 문장가로서, 江南이 배출한 人傑인데, 王安石은 이들과 交友하면서 학문이나 사상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王安石은 학문과 덕행의 검비를 친구 선택의 주요 지표로 삼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나누고, 서로 切磋琢磨하며 警戒할 수 있는 交友關係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交友之道라고 여겼던 것이다.

明經蘊, 信鳴道學二字, 著之話言. (陳植鏞, 《北宋文化史述論》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2, 3, 157쪽에서 재인용)

10) 《王臨川全集》, 488쪽 : 〈上張太博書〉; 夫文者, 言乎志者也.

11) 《王臨川全集》477~478쪽, 「答黎檢正書」: 竊以爲士之所尚者志, 志之所貴者道, 苟不合乎聖人, 則皆不足以爲道, 唯天下之英才爲可以與此.

12) 宋代 지역 감정에 의한 排他意識은 사대부 사회의 형성 초기부터 강하게 대두되었다. 宋은 北中國을 점유하고 있던 五代의 마지막 왕조인 後周의 판도를 이어받아 南方帝國을 평정하고 中國을 통일하였다. 따라서 南中國을 한 단계 낮은 지방으로 간주하여 南人 경시 사상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그 결과 南方 출신 관료는 江外人 · 南人 등으로 別稱되어 官界에서 늘 배척당하였다. 사실 南方 출신인 王安石도 당시 華北人이 장악하고 있던 정치 무대에 등장하기까지 홀로 서기를 거듭할 수 밖에 없었고, 神宗의 知遇를 받고 정권을 잡은 뒤에도 보수파들로부터 비난을 위한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梁鍾國, 고려대 사학과 박사논문, 1992, 《宋代 士大夫 사회의 형성 과정과 발전 형태에 관한 연구》 152~154쪽 참조).

### Ⅲ. 交友關係

이章에서는 王安石의 交友關係를 그와 知己投合했던 孫正之 · 曾鞏 · 王令 · 王回 등과 주고받은 詩文과 書信을 통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1. 孫侔

孫正之는 이름이 侔이며, 正之는 그의 字이다. 吳興 사람으로, 古文에 특히 뛰어났으며 성품이 孤高하여 조금이라도 자신의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면 비록 이웃이라 할지라도 어울리지 않았다. 慶曆, 皇祐 年間に 王安石 · 曾鞏과 交友하였으며 이름이 江淮 一帶에 알려졌다. 여러 차례 進士에 응시하였으나 낙방하였으며 모친의 병세가 위독해지자 종신토록 벼슬을 구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吳門 · 吳興 · 丹陽 등지에 머물렀다. 이후 또한 士大夫가 경외하는 知揚州 劉敞이 그의 사람됨이 呂公著 · 王安石과 같다고 하면서 朝廷에 추천하기도 하고, 授校書郎 揚州 州學 教授인 王陶 · 韓維 등이 侍從으로 추천하니 朝廷에서 除授하였으나 결코 나아가지 않았다. 王安石은 그를 형으로 모셨고, 友誼가 돈독하였다.<sup>13)</sup>

먼저 <送孫正之序>에 초점을 모아보자.

時俗이 그렇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衆人이다. 자신이 그렇다고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은 君子이다. 자신이 그렇다고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聖人の 道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무릇 君子는 곤궁하고 거꾸러지는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가까이 조금이라도 자신을 굽혀 時俗을 좇으려 하지 않으며, 時俗으로써 道를 이기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君子가 임금에게서 뜻을 얻은 즉 時俗을 改變하여 道로 나아가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만큼 쉬운 것이니 그의 學術이 평소에 닦여진 것이고, 뜻이 평소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時俗이 楊子 · 墨子를 좇는데 자신이 그러하지 않은 분은 孟子뿐

13) 李壁 注, 李之亮 補箋, 《王荊公詩注補箋》(巴蜀書社, 2002. 1) 202쪽, 〈寄孫正之〉題注.

이다. 時俗이 釋迦·老子를 따르는데 자신이 그러하지 않은 분은 韓愈일 뿐이다. 孟子·韓愈 같은 분은 가히 學術을 평소에 닦고 뜻이 평소에 정해져 있어서 時俗으로써 道를 이길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아깝도다! 임금에게서 뜻을 얻지 못하고 진정한 儒家의 效用을 當代에 밝힐 수 없었으니! 그러나 그들은 衆人들 가운데서 탁월하였다. 오호! 내가 오늘날의 세상을 보아하니, 둥근 관이 우뚝하고 큰 도포가 단정하며, 앉아서는 堯임금을 얘기하고 일어나서는 舜임금을 좇는다 할지라도 孟子·韓愈의 뜻으로 자신의 뜻을 삼지 않는 자가 과연 衆人과 다르겠는가?

내가 揚州에서 벼슬살이할 때, 孫正之라는 친구를 얻었다. 正之는 옛날(儒家)의 道를 행하며 또 古文에 뛰어났는데, 나는 그가 능히 孟子·韓愈의 뜻으로 자신의 뜻을 삼고 끊임없이 精進하는 사람임을 알았다. 무릇 越나라 사람이 燕나라를 바라보면 극히 먼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북쪽을 향하여 수레를 타고 출발하여 멈추지 않으면 이르지 못할 바가 없다. 孟子·韓愈의 道가 우리와 떨어져 있음이 어찌 越나라 사람이 燕나라를 바라보는 것과 같겠는가? 正之가 끊임없이 精進하는데도 이르지 못하리라고는 나는 믿지 않는다. 일단 우리 임금에게서 뜻을 얻었는데도 진정한 儒家의 效用을 當世에 밝히지 못하리라고는 나는 믿지 않는다. 正之의 형이 溫州에서 벼슬살이를 하는데 부모를 모시고 가려 한다. 이에 같이 따라가게 된 正之가 먼저 贈別의 글로 나를 위로하니, 이 내 몸 말문이 막히려 하는데 그렇다고 어찌 솟구치는 말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 경력 이년 윤 구월 십일일.<sup>14)</sup>

여기에서 王安石은 먼저 君子를 衆人과 對比시켜 그 차이점을 지적하는 데서부터 論理를 전개하고 있다. 그는 君子가 衆人과 다른 점은 바로 時勢에 영합하지 않고 자신의 확고한 主觀과 分別로 聖人の 道를 추구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時俗을 改變하려는 원대한 뜻을 늘 가슴 깊이 간직하고 學術 研磨에邁進함으로써 君子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經綸을 펼 기회를 얻었을 때에 순조롭게 자

14) 《王臨川全集》537-538쪽 : 時然而然, 衆人也. 已然而然, 君子也. 已然而然, 非私己也. 聖人之道在焉爾. 夫君子有窮苦顛跌, 不肯一失詘己以從時者, 不以時勝道也. 故其得志於君, 則變時而之道, 若反手然, 彼其術素修, 而志素定也. 時乎楊墨, 已不然者, 孟軻氏而已. 時乎釋老, 已不然者, 韓愈氏而已. 如孟, 韓者, 可謂術素修, 而志素定也, 不以時勝道也. 惜也, 不得志於君, 使真儒之效, 不白於當世! 然其於衆人也, 卓矣. 嗚呼! 吾觀今之世, 圓冠峨如, 大裙襜如, 坐而堯言, 起而舜趨, 不以孟, 韓之心爲心者, 果異衆人乎? 予官於揚, 得友曰孫正之. 正之行古之道, 又善爲古文, 予知其能以孟, 韓之心爲心而不已者也. 夫越人之望燕爲絕域也, 北轅而首之, 苟不已, 無不至. 孟, 韓之道去吾黨, 豈若越人之望燕哉? 以正之之不已, 而不至焉, 予未之信也. 一日得志於吾君, 而真儒之效, 不白於當世, 予亦未之信也. 正之之兄官於溫, 奉其親以行. 將從之, 先爲言以處如, 予欲默, 安得而默也? 慶曆二年閏九月十一日.

신의 뜻을 관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孟子 · 韓愈가 바로 가히 學術을 평소에 닦고 뜻이 평소에 정해져 있어서 道로써 時俗을 물리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어서 孫正之를 節操있는 孟子 · 韓愈에 비견할 만한 인물이라고 호평하면서, 孫正之가 “옛날(儒家)의 道를 행하며 또 古文에 뛰어나고, 孟子 · 韓愈의 뜻으로 자신의 뜻을 삼고 끊임없이 精進하는 사람임을 알고서 교우 관계를 맺었음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글을 쓰던 당시(仁宗 慶曆 2년), 王安石은 范仲淹 · 孫復 · 歐陽修 · 胡瑗 등이 중심이 되어 형성한 「正學」<sup>15)</sup>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학문 思潮 속에서 그의 개혁 이념을 하나하나 다져나가기 시작하였다. 특히 經典의 義理를 중시하여 聖人の 心意를 現世에 再現시키려는 復古 思想과, 政事와 時務를 중시하는 經綸과 功利的 경향 등은 王安石의 사상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王安石에게 있어서 탁월한 古文 창작 능력으로 文以載道하며, 이를 실천화하는 孫正之는 자신이 그리는 이상적 인물이었다. 또한 젊은 王安石 자신이 진지한 修練 과정을 거쳐서 주체적인 自我를 확립하고 장차 經世濟民하겠다는 강력한 意志의 소유자였음을 시사해 준다. 사실 그가 나중에 뜻이 맞는 젊은 神宗과 遭遇하여 宰相의 자리에 올라 既得權層인 保守派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한 채 新法이라는 과감한 개혁 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도 젊은 시절부터 學問 · 德行을 갈고 닦아 주체적인 自我를 수립한 결과인 것이다.

末尾에서는 溫州에서 벼슬살이하는 형을 따라 부모를 모시고 가야한다면 먼저 贈別의 글을 보내와 위로하는 正之와의 이별 속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데, 安石과 正之와의 끈끈한 우정을 읽을 수 있다.

다음 〈無錫寄孫正之〉시를 살펴보자.

뚝 달고 뚝대 높여 병든 몸 떠나려는데

健席高檣送病身

15) 李範鶴, <王安石 改革論의 형성과 성격> (《東洋史學研究》, 제18집, 東洋史學會, 1983) 38쪽 : 「正學」이라는 용어는 「朱子學」 · 「陽明學」 등과 달리 일정한 學派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道 · 佛 등 異端思想에 대한 儒學의 優位를 강조한 것에 불과함.

어지럽게 솟은 산 거친 언덕 돌아가는 나루터 가로막네	亂山荒隴障歸津
한 굽이 돌 때마다 응당 천 번이나 머리 돌아가고	應須一曲千回首
서쪽으로 떠나면 마음을 헤아릴 자 더욱 몇이나 되리	西去論心更幾人 <sup>16)</sup>

皇祐 2년(1050), 無錫(지금의 江蘇省 無錫市)에서 孫正之에게 부치는 시로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正之와의 이별이 무척 아쉬워 뱃머리에서 고개를 돌리고 또 돌리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하다.

王安石은 孫正之와 관련하여 위에 예시한 詩文 이외에도 〈寄孫正之〉<sup>17)</sup> · 〈答孫正之〉 · 〈雲山詩送正之〉 · 〈沂溪懷正之〉 등의 詩와 〈與孫侔書〉 · 〈答孫少述書〉 등의 散文 작품을 남기고 있는데, 이들 작품을 통하여 둘 사이의 깊은 우정을 확인할 수 있다.

## 2. 曾鞏

曾鞏은 王安石이 흥금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이자 친척이었다. 두 사람은 모두 江西 출신으로, 兩家 사이에 인척 관계가 맺어져 있었는데, 王安石의 첫째 동생인 王安國은 曾鞏의 妹弟이고, 曾鞏의 고모는 王安石 모친의 伯母이자 妻祖母이기도 하였다. 曾鞏의 동생 曾布는 安石이 新法을 추진할 때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척 관계로 두 사람은 일찍부터 자연스럽게 우정을 쌓아가기 시작하였다.<sup>18)</sup> 두 사람은 서로 書信을 주고 받거나 서로를 그리워하는 詩文을 많이 남겼는데,<sup>19)</sup> 이러한 書信과 詩文 속에 兩人的 돈독한 友情이 스며들어 있다.

16) 李壁 注, 李之亮 補箋, 《王荊公詩注補箋》(巴蜀書社, 2002. 1) 947쪽.

17) 〈寄孫正之〉라는 詩題로 다른 내용의 두 편의 시가 있음.

18) 〈寄曾子固〉: 吾少莫與合, 愛我君爲最(나 어릴 적 어울릴 사람 없었는데, 나를 좋아해준 사람은 자네가 최고였네) (李壁 注, 李之亮 補箋, 《王荊公詩注補箋》(巴蜀書社, 2002. 1, 320쪽)

19) 王安石 詩: 〈贈曾子固〉 〈答曾子固南豐道中所寄〉 〈得子固書因寄〉 〈寄曾子固 二首〉

〈得孫正之詩因寄兼呈曾子固〉 〈豫章道中次韻答曾子固〉

文: 〈答曾子固書〉 〈同學一首別子固〉

曾鞏 詩: 〈寄王介甫〉 〈過介甫歸偶成〉 〈酬介甫還自舅家書所感〉 〈過介甫〉 〈過介甫歸偶成〉

〈寄王介卿〉 〈之南風道上寄介甫〉 〈江上懷介甫〉 〈寄王荊公介甫〉

曾鞏이 安石에게 보낸 〈懷友一首寄介卿〉을 살펴보자.

聖人は 道에 있어서 思考로 그것을 얻는 게 아니라, 애써 실천함으로써 그것에 이르는데, 그것이 賢人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러나 성인은 자신만을 전적으로 믿고 자신을 덮어가리지 않으며, 스승이나 친구에게서 참조하여 보고 구함으로써 道를 넓히고 자기 성취에 도움이 되게 한다. 그러므로 孔子의 스승은 老子·鄭子였다고 하고, 친구는 子產·晏嬰이었다고 하는 것이다. 스승과 친구는 중요한 것이니, 성인조차 그러했거늘 성인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스승을 모시지 않고 학문을 전하거나 친구를 사귀지 않고 산다면 후회하지 않을 사람이 드물 것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였지만, 스승과 벗을 얻지 못했으므로 마음을 쏟아도 적중하지 못하고 각고면려해도 이르지 못했으니, 성인의 中庸을 바랐지만 아직 이를 수가 없었다. 일찍이 옛 법도를 행하는 선비를 얻어 그와 교유하면서 애써 나의 잘못을 살펴보고 질차탁마하기만을 바랄 뿐이었고, 나 역시 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四海에서 그런 사람을 애써 구했지만 얻지 못하였다.

介卿을 얻은 후부터 비로소 간절히 구하는 바를 보살펴 도와주었고,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道에 따라 이끌어주었으므로, 나로 하여금 각고면려하면 적중하게 하고 생각하면 석연하게 알게 해주고, 中庸의 경지도 바라면 가히 계획대로 이를 수 있게 하고, 오랫동안 서로 교유하면 후회가 없을 것임을 알게 하였다.

그러나 介卿은 揚州에서 관리를 하고, 나는 남쪽 끝에서 궁벽하게 살게 되어 함께할 날은 적고 이별할 날은 많아졌으니, 질차탁마의 효과도 낮아지고 어리석은 나는 태만해질 것이므로 참으로 걱정이 된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이를 글로 써서 서로 위로하고警戒하고자 한다.

介卿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옛 道를 행하며 그의 문장은 그의 행위와 일치하는데, 오늘날의 사람들 중에는 극히 드물고 옛사람들 중에서도 본래 행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懷友〉를 짓고 두 통을 써서 하나는 내가 간직하고 하나는 介卿의 집에 두기로 했다.<sup>20)</sup>

文：〈與王介甫第一書〉〈與王介甫第二書〉〈與王介甫第三書〉〈懷友一首寄介卿〉

20) 余冠英等主編，《唐宋八代家全集·曾鞏集·南豐先生集外文卷下》（國際文化出版公司，1997），2045쪽：聖人之於道，非思得之，而勉及之，其間於賢大遠矣。然聖人者不專己以自蔽也，或師焉，或友焉，參相求以廣其道而輔其成。故孔子之師，或老聃、鄭子云；其友，或子產、晏嬰云。師友之重也，聖人然爾。不及聖人者，不師而傳，不友而居，無悔也希矣。予少而學，不得師友，焦思焉而不中，勉勉焉而不及，抑其望聖人之中庸而未能至者也。嘗欲得行古法，度士與之居或遊，孜孜爲考予之失而切劘之，庶於幾而後已，予亦有以資之也。皇皇四海求若人而不獲，自得介卿，然後始有周旋徽慙，摘予之過而接之以道者，使予幡然其勉者有中，釋然其思者有得矣。望中庸之域其可以策而及也，使得久相從居與遊，知免於悔矣。

이 글은 慶曆 3년(1043), 曾鞏이 淮南判官으로 있던 王安石이 휴가차 고향 臨川에 머물고 있을 시기에 서로 만나 모처럼 회포를 풀며 우정을 나눈 뒤에 쓴 것이다.<sup>21)</sup>

서두에서 聖人は ‘오로지 자신만을 믿고 자신을 덮어가지 않으며, 참다운 스승과 친구의 도움으로 추구하는 道에 이른다.’라고 하면서 그 동안 진정으로 교류할 수 있는 친구를 애써 구했지만 얻지 못한 고충을 기탁하고 있다. 이어서 친구다운 친구를 찾고 있던 차에 다행히 安石이란 인물을 만나 교류하면서, 中庸의 경지에 이르는 데 敎導해 줄 수 있는 친구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서로 먼곳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함께할 시간이 적어서 서로 충분히 마음을 나누고 채찍질할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현실을 타개할 것인가? 이에 曾鞏은 〈懷友〉라는 글을 지어 각자 간직함으로써 서로 警戒하고 위로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친구로서 曾鞏과 安石의 신뢰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다.

이어서 이에 대한 回信의 성격을 띤 〈同學一首別子固〉를 살펴보자.

江南에 賢人이 있는데, 字가 子固이며 오늘날 소위 (세간에서) 일컫는 賢人이 아니므로, 나는 그를 흠모하고 친구로 삼았다. 淮南에 賢人이 있는데, 字가 正之이며 오늘날 소위 일컫는 賢人이 아니므로, 나는 그를 흠모하고 친구로 삼았다. 두 賢人은 일찍이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일찍이 서로 대화를 나눈 적도 없으며 일찍이 서신이나 선물을 서로 받은 적이 없다. 그들의 스승과 친구가 어찌 다 같겠는가? 내가 그들의 언행을 살펴보니, 서로 닮지 않은 부분이 얼마나 적던지! 말하노니 : 聖人을 배운 결과일 따름이다. 聖人을 배우고자 하는 즉 그들의 스승과 친구도 반드시 聖人을 배우고자 할 것이다. 聖人의 言行이 어찌 돌릴 수가 있겠는가? 그들이 서로 닮은 것도 또한 당연한 것이다.

내가 淮南에 있을 때, 正之에게 子固에 대해 얘기했더니 正之는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江南에 돌아와 子固에게 正之에 대해 얘기했더니 子固 역시 그렇다고 생각하였다. 나 역시 賢人이라 일컫는 사람들을 알므로 서로 비슷하고

而介卿官於揚，予窮居極南，其合之日少而離別之日多，切劘之效淺而愚無知是解，其可懷且憂矣。思而不釋，已而斂之，相慰且相警也。介卿居今世行古道，其文章稱其行，今之人蓋希，古之人，固未易有爲也。爲作〈懷友〉書兩通，一自藏，一納介卿家。

21) 柳瑩杓, 〈曾鞏과 王安石의 교류〉, 《中國文學》 38 (2002. 11), 韓國中國語文學會, 92~93쪽 참조.

서로 믿었다.

子固가 〈懷友〉 한 편을 써서 나에게 보냈는데, 그 概要는 서로 이끌어줌으로써 中庸에 이르지는 것이었다. 正之道 는 “무릇 은근히 수레를 몰고 徐行해서 中庸의 대청 마루에 수레가 이른 연후에 內室에 이르게 된다.” 고 말한 적이 있는데, 두 賢人을 빼고 누가 있겠는가? 나는 옛날에 감히 스스로 그 中庸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음을 긍정하지 못했는데, 좌우에서 그들을 좇기를 원할 따름이다. 도와주고 나아가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관직에 있으면 지켜야 할 직책이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업히는 일들이 있으니. (친구간의) 회합도 늘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同學一首別子固〉 한 편을 써서 서로 警戒하고 서로 위로하고자 한다.<sup>22)</sup>

이 글은 서두에서 曾鞏과 孫正之 兩人을 친구로 삼은 이유는 두 사람 모두 ‘聖人之道를 추구하고 몸소 이를 言行으로 실천하는 데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어서 孫正之가 “무릇 은근히 수레를 몰고 徐行해서 中庸의 대청 마루에 수레가 이른 연후에 內室에 이르게 된다.”<sup>23)</sup>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中庸이 儒家道德의 최고 표준이며 바로 兩人이 이러한 中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극찬하고, 安石 자신도 친구인 兩人의 敎導로 中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 글을 통하여 서로 호모하고 경계하며 위로하면서 中庸之道의 경지에 同伴 到達하려고 애쓰는 安石과 曾鞏 · 孫正之 사이의 깊이있는 友情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

兩人의 든실한 交友關係는 王安石의 〈答段縫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段君 足下：

저는 서울에 있을 때, 일찍이 선생에게 曾鞏이 문장에 뛰어나다고 말씀을

22) 《王臨川全集》452쪽：江之南有賢人焉，字子固，非今所謂賢人者，予慕而友之。淮之南有賢人焉，字正之，非今所謂賢人者，予慕而友之。二賢人者，足未嘗相過也，口未嘗相語也，辭幣未嘗相接也。其師若友，豈盡同哉？予考其言行，其不相似者何其少也！曰：學聖人而已矣。學聖人，則其師若友，必學聖人者。聖人之言行，豈有二哉？其相似也適然。予在淮南，爲正之道子固，正之不予疑也。還江南，爲子固道正之，子固亦以爲然。予又知所謂賢人者，既相似又相信不疑也。子固作〈懷友〉一首遺予，其大略欲相振以至乎中庸而後已。正之蓋亦常云爾，夫安驅徐行，轡中庸之庭，而造於其室，舍二賢人者而誰哉？予昔非敢自必其有至也，亦願從事於左右焉爾。輔而進之，其可也。噫！官有守，私有繫，會合不可以常也。作〈同學〉一首別子固，以相警，且相慰云。

23) 《論語·先進》：子曰：由之瑟，奚爲於丘之門。門人不敬子路，子曰：由也升堂矣，未入於室也。

드렸습시다만, 일찍이 그 사람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시다. 江南으로 돌아온 뒤에 비로소 그를 알게 되고 사모하여 친구로 삼았으므로, 글을 써서 그의 품행을 대략 얘기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서신은 들은 바를 가지고 曾鞏의 행동에 좋은 점이라곤 없고 그가 집에 있으면 친지와 친구들이 두려워한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제가 曾鞏을 질책하는 글이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고 두둔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과연 선생님의 말씀인가요?

曾鞏은 물론 그렇지 않습시다. 曾鞏의 문장과 논리는 제 교우 중에서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습시다. 그의 마음은 道에 합당한 것에 용감해서 대개 형벌과 名利 官祿으로도 움직일 수가 없을 것입시다. 부친이 곤경에 처했을 때, 옆에서 봉양하며 소홀함이 없었습시다. 집안일도 조그만 일까지 모두 친히 관심을 가졌습시다. 부친도 그를 매우 사랑하여 일찍이 “우리 가문이 피폐해졌지만, 의지할 데는 이 아이뿐이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이것이 제가 본 바입시다. 足下가 들은 것은 제가 본 바가 아닙시다. —

曾鞏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단호하여 다른 사람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경우가 드물어 때때로 中道에서 벗어나곤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江南으로 돌아왔을 때 일찍이 그에게 충고하였는데, 曾鞏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시다. 曾鞏은 물론 저를 가르쳐준 적도 있습시다. 그는 《懷友書》 두 통을 써서 하나는 자신이 보관하고, 하나는 저의 집에 두었는데, 서로 절차탁마를 추구하여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허심탄회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시다. —

친화에 우매한 자는 많지만 현명한 자는 드문데, 우매한 자는 물론 현명한 자를 질투하며 현명한 자는 또한 스스로 지키며 우매한 자와 어울리지 않으므로 우매한 자는 더욱더 원망하게 됩니다. 질투와 원망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비방하지 않는 바가 없습시다. 군자 중에 잘못 듣는 자는 또한 전하여 널리 퍼뜨리기 때문에 현명한 자는 늘 비방을 많이 받으며, 그 괴로움은 하층 사람들보다도 더욱 심합니다.

勢가 習俗을 움직이기에 부족하고 명분과 실체가 백성들에게 납득이 되지 않으면, 우매한 자는 쉽게 비방하게 되고 비방은 쉽게 전하여지게 됩니다. 무릇 曾鞏을 운운하는 자는 물론 질투하고 원망하고 잘못 듣는 자일 것입시다. — 孔子께서 “여러 사람이 그를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보며, 여러 사람이 그를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sup>24)</sup> 고 말씀하셨습니다. 孟子께서 “백성들이 모두 죽일 만하다고 하여도 죽여서는 안되고, 죽일 만한 점을 발견한 뒤에 죽여야 합니다.”<sup>25)</sup>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孔子·孟子가 孔子·孟子다운 바는 바로 스스로를 지킴에 뛰어나서 대중에게 미혹되지 않았

24) 《論語·衛靈公》子曰：衆惡之，必察焉，衆好之，必察言。

25) 《孟子·梁惠王 下》：國人皆曰可殺然後，察之，見可殺焉然後，殺之。故曰：國人殺之也。

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중에 미혹되었다면, 대중이 있었을 따름이지, 어찌 孔子·孟子가 있었겠습니까? 足下께서는 잠시 自重하시어 경솔하게 曾鞏을 논의하지 말기 바랍니다. 26)

여기에서 安石은 段縫<sup>27)</sup>이 世間的 曾鞏에 대한 비방을 그대로 믿고 曾鞏을 비난하는 데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曾鞏을 변호하고 있다. 먼저 가족·친지와 不和說에 대해서 잘못 전해진 소문이며, 부친을 잘 奉養하는 孝子이고 家庭事에 대해서도 조그마한 일까지 챙기는 사람이라고 대변하고 있다. 문장과 논리에 뛰어나고, 名利官祿도 도외시하는 道義心있는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단호하여 융통성이 없는 점이 흠이지만, 安石 자신이 친구로서 충고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끝으로 현명한 자는 孔子·孟子로부터 배워 獨立自守하여 대중의 무리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주위의 비판 여론을 감수하면서도 改革觀을 관철시키겠다는 王安石 자신의 강한 改革意志의 表露이기도 하다.

한편 王安石이 曾鞏의 死後, 추모하는 글을 남기지 않았다는 근거 등을 들어서 중년기 이후에는 王安石과 曾鞏과의 교우관계가 매우 疏遠해졌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물론 新法 시행 과정에서 견해차이를 드러내면서 갈등을 빚었던 것은 사실이며, 兩人이 平生知友로 남지 못했다는 부분은 아쉽지만, 어린 시절부터 중년에

26) 《王臨川全集》479쪽 : 段君足下 ; 某在京師時, 嘗爲足下道曾鞏善屬文, 未嘗及其爲人也. 還江南, 始熟而慕焉, 友之, 又作文粗道其行. 專書以所聞証鞏行無纖完, 其居家, 親友惴畏焉, 怪某無文字規鞏, 見謂有黨, 果哉足下之言也? 鞏固不然. 鞏文學論議, 在某交遊中, 不見可敵. 其心勇於適道, 殆不可以刑禍利祿動也. 父在困厄中, 左右就養無虧行, 家事銖髮以上皆親之, 父亦愛之甚, 嘗曰: “吾宗祚, 所賴者此兒耳.” 此某之所見也. 若足下所聞, 非某之所見也. --- 鞏果於從事, 少許可, 時時出於中道. 此則還江南時嘗規之矣, 鞏聞之輒變然. 鞏固有以教某也. 其作〈懷友書〉兩通, 一自藏, 一納某家, 皇皇焉求相切劘, 以免於悔者略見矣. --- 天下愚者衆而賢者希, 愚者固忌賢者, 賢者又自守, 不與愚者合, 愚者加怨焉. 挾忌怨之心, 則無之焉而不謗. 君子之過於聽者, 又傳而廣之, 故賢者常多謗, 其因於下者尤甚. 勢不足以動俗, 名實未加於民, 愚者易以謗, 謗易以傳也. 凡道鞏之云云者, 固忌固怨固過於聽者也. --- 孔子曰: “衆好之, 必察焉; 衆惡之, 必察焉.” 孟子曰: “國人皆曰可殺, 未可也; 見可殺焉, 然後殺之.” --- 孔、孟所以爲孔、孟子, 爲其善自守, 不惑於衆人也. 如惑於衆人, 亦衆人耳, 烏在其爲孔、孟也? 足下姑自重, 毋輕議鞏

27) 字는 約之이며, 관직이 朝散大夫에 이르렀으며, 金陵에 거주하면서 王安石과 노년까지 친교를 유지했다. (柳瑩杓, 〈曾鞏과 王安石의 교유〉, 《中國文學》38 (2002. 11), 韓國中國語文學會, 93쪽 참조.

이르기까지 두 사람은 진정으로 깊은 교우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sup>28)</sup>

### 3. 王旣

王旣은 北宋 詩人이며, 逢原은 그의 字이다. 安石은 至和 元年(1054), 舒州通判의 임기를 마치고 上京하는 길에 高郵 땅을 지나가다가 王旣의 獻詩를 받게 된다. 그 당시 王旣은 생활이 곤궁하면서도 벼슬을 원하지 않고 修學하고 있었다. 安石은 그의 詩文을 읽은 후, 그의 재능과 품행에 감동되어 그와 布衣之交를 맺는다. 그 후 安石은 처의 사촌 누이동생과 혼인까지 성사시킨다. 安石은 十歲 年下인 王旣을 진정친 친구로 여기고 그의 학문과 德行을 높이 평가하여 顔回에 비견하기도 하였다.<sup>29)</sup>

먼저 〈與王逢原書七 其七〉에 주목하여 보자.

제가 逢原 足下에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

방금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보내주신 서신을 받았으니 더욱 위안이 됩니다. 당신이 저에게 敎導하는 것은 바로 제 마음 속에서 생각한 바입니다. 궁벽한 곳에 있어 교유할 사람이 없고, 더불어 논의하는 자들도 모두 流俗의 무리를 벗어날 수 없는데, 逢原이 나를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러한 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힘을 다해 하고 싶은 바를 구하고자 하고 있지만, 어느 때 얻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겨울과 봄이 교대할 때까지는 이곳을 떠날 수 없으니, 江寧에서 서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가능한지요? 이처럼 가르침을 받으므로 당연히 약속한 곳으로 가야하는데, 潤州에 사는 것을 도모하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江陰은 어찌 머물지 않을 수 없단 말이오? 만약 潤州에 있으면 서로 만나기가 매우 쉬울 것이오. 兵士를 배치하는 일은 만나면 자세하게 설명하겠소, 나머지 더욱 가르침을 받을 바가 있으면 가르침 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은 친구간에 서로 깨우쳐주는 道義가

28) 王安石과 曾鞏의 갈등과 우정에 대해서는 柳鏗杓 教授가 〈曾鞏과 王安石의 교유〉(《中國文學》 38 (2002. 11), 韓國中國語文學會)에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며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29) 劉敞, 《公是集》卷八, 〈雜錄〉: 旣, 亦揚州人, 少時落拓不檢, 未爲鄉里所重, 後折節讀書, 作文章有古人風, 王旣獨知之, 以比顔回也.

없으니, 말 또한 반드시 소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저 가르침을 받은 것은 나로 하여금 세속과 어울리고 합류하라는 것이다. 足下가 나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서 바라겠습니까? 저는 섭섭한 바가 없습니다. 추운 겨울에 몸조심하시길.<sup>30)</sup>

이 글은 “겨울과 봄이 교대할 때까지는 이곳을 떠날 수 없으니, 江寧에서 서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嘉祐 3년(1058), 安石이 提點 江東刑獄의 職에 있으면서 江寧에 머무르고 있을 당시의 작품이다. 이 때, 王승은 江陰에서 학생들을 모으고 講學하고 있었는데, 江寧에서 가까운 潤州에 살기를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신뢰할 만한 友人을 찾을 수 없는 江寧 任地에서, 마음을 나누며 혼자 해결하기 힘든 事案에 대해서 高見을 듣고 싶은 安石의 願望이 간절하다. 安石은 王승이 학문과 덕행을 갖춘 선비로서, 자신을 가르치고 인도해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라고 믿었던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의지하던 王승이 28세의 나이로 幽明을 달리하고 말았으니 安石의 비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오호! 道가 밝지 않은 것은 어찌 다만 가르침이 지극하지 않아서인가? 선비 또한 잘못이 있는 것이다. 오호! 道가 행해지지 않는 것은 어찌 단지 교화가 지극하지 않아서인가? 선비 역시 잘못이 있는 것이다. 무릇 일정한 재산은 없지만, 常心이 있는 자가 옛날의 이른바 선비인 것이다. 선비가 진실로 常心을 지니고 聖人の 가르침을 파악하여 애써 행하면 道는 비록 천하에 밝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자기자신에게는 밝아진다. 道가 비록 천하에 밝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妻子에게 행해진다. 안으로 자신에게 밝아지고, 밖으로 妻子에게 행해지면 그 言行은 반드시 천하에 고립할 수가 없게 된다. 이것이 孔子·孟子·伯夷·柳下惠·揚雄같은 인물이 세상에 끼어 있는 까닭인 것이다.

30) 《王臨川全集》477쪽 : 某頓首逢原足下; 方欲作書, 而得所賜書, 尤感慰. 唯逢原所以教我, 得鄙心所欲出者. 窮僻無交遊, 所與議者, 皆不出流俗之人, 非逢原之教我, 尙安得聞此? 方力求所欲, 但未知何時得耳. 及冬春之交未得脫此, 冀相遇於江寧, 不審肯顧否? 承教許如此, 當可如約也, 但不謀潤居, 何也? 江陰豈不可留乎? 若在潤, 則相遇尤易耳. 配卒事, 須面紋乃悉, 餘更有所聞, 悉望見教. 今世既無朋友相告戒之道, 而言亦未必可用. 大抵見教者欲使某同乎俗, 合乎世耳. 非足下教我, 尙何望於他人? 竊無所惜也. 冬寒, 自愛.

오호! 나는 우매하고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잘못이 있는 선비이지만, 친구를 얻게 되었다. 나의 친구는 字가 逢原이고, 이름이 旣, 姓이 王氏로 廣陵 사람이다. 처음에 나는 그의 문장을 좋아하여 그가 쓴 글을 얻었고, 중도에 나는 그의 節操있는 행실을 좋아하여 그가 행하는 바를 얻었으며, 나중에는 나는 그가 쓴 글을 얻었는데 (그 경지가) 넓디 넓은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끝이 없었고, 그가 행하는 바를 얻었지만 遙遠하여 좇아가려고 해도 이르지 못하였다. 이런 까닭에 개탄하노라! 세상의 重任을 맡아 천하에 功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여, 이곳에서 나는 그대와 더불어 친구가 되려 하였는데 그럴 수가 없게 되었으니. 오호! 지금 나를 남겨두고 죽고 말았으니 비통하다! ——

銘에 이르노니 : 수명이 어찌 짧단 말인가? 하늘이 진실로 그대에게 인색하도다! 하늘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찌 그대에게 德을 후하게 하였겠는가? 후한 것은 배가시켰고, 인색한 것은 떨쳐버렸네. 즐거워하면서 그만두지 않고,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았네. 오호! 하늘의 백성이 바야흐로 이곳에 머물려고 하네.<sup>31)</sup>

여기에서 安石은 먼저 王旣의 “일정한 재산은 없지만, 常心이 있는” 선비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常心은 不變의 道德心으로서, 그 당시 常心 결핍증에 걸린 선비들이 많은 世態 속에서 王旣은 고대의 孔子 · 孟子 · 伯夷 · 柳下惠 · 揚雄 같은 인물과 병칭할 수 있는 선비였던 것이다. 이어서 安石은 “그의 문장과 節操있는 행실을 좋아해서 그와 交友關係를 맺었고, 세상의 重任을 맡아 功을 세울 수 있는 인물이라 믿었거늘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버리다니!”라고 하며 王旣과의 交友過程을 회상하면서 悲嘆에 잠기고 있다.

다음의 〈思王逢原〉<sup>32)</sup> 詩에서는 沈痛한 모습이 역력하다.

31) 《王臨川全集》 612쪽, 〈王逢原墓誌銘〉: 嗚呼! 道之不明邪, 豈特教之不至也, 士亦有罪焉. 嗚呼! 道之不行邪, 豈特化之不至也, 士亦有罪焉. 蓋無常產而有常心者, 古之所謂士也. 士誠有常心, 以操聖人之說而力行之, 則道雖不明乎天下, 必明乎己; 道雖不行於天下, 必行於妻子. 內有以明於己, 外有以行於妻子, 則其言行必不孤立於天下矣. 此孔子、孟子、伯夷、柳下惠、揚雄之徒, 所以有功於世也. 嗚呼! 以予之昏弱不肖, 固亦士之有罪者, 而得友焉. 余友字逢原, 諱旣, 姓王氏, 廣陵人也. 始予愛其文章, 而得其所以言; 中予愛其節行, 而得其所以行; 卒予得其所以言, 浩浩乎其將沿而不窮也, 得其所以行, 超超乎其將追而不至也. 於是慨然歎, 以爲可以任世之重而有功於天下者, 將在於此, 余將友之而不得也. 嗚呼! 今棄余而死矣, 悲夫! —— 銘曰: 壽胡不多? 天實爾嗇. 日天不相, 胡厚爾德? 厚也培之, 嗇也推之. 樂以不罷, 不怨以疑. 嗚呼! 天民, 將在於茲.

32) 李壁注, 李之亮補箋, 《王荊公詩注補箋》(巴蜀書社, 2002. 1) 196쪽.

나 봉원을 잃고부터	自吾失逢原
부딪치는 일마다 번번이 걱정이네	觸事輒愁思
어찌 유독 고인 탓일까마는	豈獨爲故人
가슴 어루만지며 진실로 내 자신을 슬퍼한다오	撫心良自悲
나의 선행 누가 도와주며	我善孰相我
누가 나의 결점 알려주리오?	孰知我瑕疵
내 생각 누가 도모해주며	我思誰能謀
내 말 들어줄 사람 누구인가?	我語聽者誰

그대 묘소 위 흙엔	念子冢上土
피풀이 이미 어지럽게 무성하겠지	草茅已紛披
다소곳한 부인은 아직 젊은데	婉婉婦且少
외롭게 홀로 청상과부 신세	癯癯一兄婺
높은 의리 마을을 감동시키고	高義動閭里

부인이 북으로 돌아오려고 한다는 소식 듣고	聞婦欲北返
발돋움하며 늘 몹시 기다리고 있네	跂予常望之
차가운 汴河엔 이미 나루터 막히니	寒汴已閉口
이번 상경길 또 순조롭지 못하겠네	此行又參差
또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又說當產子
산달은 언제인지?	產子知何時
賢者에게는 마땅히 후손이 있어야 하므로	賢者宜有後
응당 꿈꿈 꾸어야할 텐데	固當夢熊羆
하늘도 이젠 믿을 수 없지만	天方不可恃
나의 바램도 바로 여기에 있소	我願適在茲
나는 피로하여 배운 것을 더욱 그르치게 되고	我疲學更誤
세상과 서로 맞지 않네	與世不相宜
오래전에 마음 이미 받아들여	宿昔心已許
같은 언덕에 띠로 지붕 일었었지	同岡結茅茨
그런 일들 지금은 다 끝나버렸고	此事今已矣
끝나버렸으니 아직도 누가 알리오?	已矣尙誰知
넓고 아득한 강과 호수	渺渺江與潭
망망한 산과 비탈	茫茫山與陂
어찌 祿만 축내면서	安能久竊食
옛 친구와의 기약을 끝내 저버릴 수 있으리오.	終負故人期

王승의 死後, 친구를 잃은 슬픔이 조금도 가지지 않고 더욱더 그리운 정에 몸부림치는 安石의 처절한 모습이 절실하게 그려져 있다.

먼저 자신의 善行을 치켜올려주고 잘못을 지적해주던 王승을 떠올리며, 그의 죽음으로 삶의 樂도 사라져버린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읊고 있다. 이어서 청상과 부가 된 그의 아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자신의 처의 사촌 동생인데다가 사위감으로 추천하였지만, 가난하다는 이유로 혼인을 거절하던 그의 아내의 부친을 설득하여<sup>33)</sup> 성사시킨 安石으로서는 남다른 미안한 감정이 들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아들을 낳아 대를 잇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安石의 기원도 보람없이 王승의 아내는 딸을 낳게 된다. 그녀는 딸이라는 사실에 적지 않게 낙담하면서 죽은 남편에게도 미안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녀는 재혼을 거부하고 홀몸으로 딸을 키우며 마을 사람들의 선두에 서서 토지를 개간하고 관개용수를 끌어들이고 곤궁한 사람들을 도와줘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딸도 장성하자 또 安石의 도움으로 예전부터 王승을 흠모하고 있던 錢塘의 吳師禮에게 시집을 간다.<sup>34)</sup> 마지막으로 安石은 당시 벼슬살이에서 자신의 개혁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은퇴하여 王승과 약속했던 것처럼 전원으로 돌아가고픈 심정을 기탁하고 있다.

王安石과 王승의 적지 않은 詩文 속에서 兩人的 끈끈하고 변함없는 우정을 실감할 수 있는데,<sup>35)</sup> 이러한 우정의 끈은 兩人的 학문과 덕행으로 더욱더 튼실하게 맺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33) 《王臨川全集》474쪽, 〈與吳司錄議王逢原姻事書 其二〉: 王令秀才見在江陰聚學, 文學、知識與其性行, 誠是豪傑之士, 或傳其所爲過當, 皆不足信. 某此深察其所爲, 大抵只是守節安貧耳. 近日人從之學者甚衆, 亦不至絕貧乏, 況其家口寡, 亦易爲贍足. --- 此人但恐久遠非終因窮者也, 雖終因窮, 其畜妻子, 當亦不至失所也. 渠却望二舅有信來, 決知親事終如何, 幸一賜報也.

34) 미우라쿠니오 저, 이승연 옮김, 《王安石 - 황하를 거스른 개혁가》(책세상, 2005. 9) 91~92쪽 참조.

35) 王安石 詩: 〈寄王逢原〉 〈思王逢原〉 〈思王逢原 三首〉 〈王逢原挽辭〉 〈哭王逢原〉

文: 〈與王逢原書 七〉 〈王逢原墓誌銘〉

王令 詩: 〈噫田操四章章六句寄呈王介甫〉 〈南山之田贈王介甫〉 〈翩翩弓之張兮詩三章寄王介甫〉

〈我策我馬寄王介甫〉 〈贈王介甫〉 〈次韻介父冬日〉 〈寄介甫〉 二篇

〈歲暮呈王介甫平甫〉 〈塵土呈介甫〉

文: 〈上王介甫書〉 〈答王介甫書〉 〈與王介甫書〉

## 4. 王回

王回는 字가 深父(深甫)이며, 福建 侯官人으로 曾鞏과 同門이었고, 名望있는 理學家였다. 그는 進士에 급제하여 衛眞縣 主簿를 제수받았으나 一年餘만에 病을 핑계로 辭職하였다. 그 후 또 出仕를 권유받았으나 모친을 봉양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학문 연마에 주력하였다. 慶曆 6년(1046), 王安石은 京師에서 王回와 知己之友가 되었다. 이 후 兩人은 論學 · 論道 · 論政에 있어서는 비록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지만, 友誼에 있어서는 始終 변함 없었다. 王安石은 王回가 43세의 나이로 세상을 하직하자, 매우 비통해하며 〈王深父墓誌銘〉 · 〈祭王回深甫文〉 등을 지어서 弔問하였다.

〈答王深甫書三 其一〉를 살펴보자.

저는 이곳에 억매어 있어 답답하고 즐겁지 아니하므로, 밤낮으로 深甫가 와서 나의 마음을 환하게 풀어주길 바라고 있소. 저의 서신을 받았으나 제가 바라는 바를 알지 못하고, 하물며 京師에서 穎良까지는 멀지 않으며 深甫의 집안 일도 물론 한가할 때가 있을 텐데, 어찌 몇일의 수고를 아까와하며 나를 한번도 돌아보지 않는단 말이오? 交友之道가 상실된 지 오래되었지만, 나는 深甫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지 않을 수 없소. 일찍이 天民에 대해 말한 것은 深甫와 같지 않소. 비록 서로 간절한 가르침을 받았지만, 뜻은 아직도 深甫와 서로 일치할 수가 없소. — 深甫가 나의 말에 대해서 常君과 토론을 해보고 兩人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원컨대 나를 가르쳐주소.<sup>36)</sup>

學問上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지만 深甫와의 변함없는 우정을 渴求하고 있는 王安石의 마음이 구구질질이 담겨져 있다. 當代 交友之道가 상실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어떤 사안에 대한 관점은 일치하지 않지만 서로 마음을 나누고 敎導하는 것이 참된 交友之道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마지막 구절에

36) 《王臨川全集》459쪽 : 某拘於此, 鬱鬱不樂, 日夜望深甫之來, 以豁吾心. 而得書, 乃不知所冀, 況自京師去穎良不遠, 深甫家事, 會當有暇時, 豈宜愛數日之勞而不一顧我乎? 朋友道喪久矣, 此吾於深甫不能無望也. 向說天民與深甫不同. 雖蒙丁寧相教, 意尚未能與深甫相合也. 一深甫嘗試以某之言與常君論之, 二君猶以爲未也, 願以教我.

서는 常君과 토론해보고도 자신의 관점에 문제가 있다면 잘못을 지적해달라며 가르침을 청하고 있다. 深甫에게 자신이 신뢰하고 있던 常君과의 허심탄회한 토론을 제안한 것은 자신의 견해가 옳다는 확신을 재확인하려는 王安石의 의도로 보이지만, 深甫 · 常秩를 진정한 知友로 여기고 허물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常君’은 이름이 常秩이고, 字가 夷甫인 穎州 汝陰 사람이다. 歐陽修가 穎州教授 · 國子監直講 · 大理評事 · 知長葛縣 등으로 추천하였지만 모두 固辭하고 出仕하지 않고 있다가, 王安石이 新法政策을 추진하면서 추천하자, 개혁정책이 옳다고 여기고 入闕하여 右正言直集賢院 · 舍人院 · 天章閣侍講 · 修起居注 · 寶文閣待制兼侍講 등의 職을 역임하면서 王安石의 新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인물이다. 王安石은 그의 死後 〈寶文閣待制常公墓表〉를 지어 그의 생전의 道義와 清廉, 出仕와 隱逸의 적절한 時點 선택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에게 관직을 주어도 하려 하지 않고, 召見하러 하여도 나아가지 않았으니, 후자는 말하기를 “(그는) 반드시 은퇴한 사람으로 평생 이렇게 지낼 따름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지금의 천자의 禮遇를 받자, 나아가 應召하였다. 그래서 天子는 그가 이른 것을 기뻐하며 마음을 비우고 諮問을 구했으며, 諫官의 職을 맡도록 함으로써 그가 자신을 敎導하는 것을 관찰하였고, 太學의 行정을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그가 선비를 양성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공이 天子에게 進言한 말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모두들 그가 충성스럽고 아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아랫사람들에게 배풀면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았지만, 모두들 그를 올바르고 구차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

周代의 道義가 매몰된 이후로, 살펴보건대 학자가 取捨하는 바는 대체로 當代의 좋아하는 바이다. 時俗을 위배하고 자신에게 만족하며 홀로 서서 우뚝섰으니, 아아! 공의 현명함은 원대한 것이로다!<sup>37)</sup>

王安石의 深甫에 대한 존경과 믿음, 깊은 우정의 강도는 그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生前의 言行과 그와의 交友를 회상하며 쓴 〈王深父墓誌銘〉에 확연히 드러난다.

37) 《王臨川全集》570쪽 : 官之而不事, 召之而不赴, 或曰: “必退者也, 終此而已矣。”及爲今天子所禮, 則出而應焉。於是天子悅其至, 虛己而問焉, 使蒞諫職, 以觀其迪己也。使董學政, 以觀其造士也。公所言乎上者無傳, 然皆知其忠而不阿; 所施乎下者無助, 然皆見其正而不苟。--- 自周道隱, 觀學者所取捨, 大抵時所好也。違俗而適己, 獨行而特起, 嗚呼! 公賢遠矣!

나의 친구 深父는 저술이 그의 言論을 나타내기에 충분하였고, 言論이 그의 뜻을 반영하기에 충분하였다. (그의) 뜻은 聖人の 道를 자신의 임무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무릇 命이 다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罣치를 작게 하고 삼가함을 경솔하게 함으로써 人의 耳目에 迎合하려 하지 않고, 取捨하고 進退하며 나아가고 머무는 데 반드시 仁義를 기준으로 삼아 따랐다. 세상에서는 그의 학문 문장과 품덕 행위를 칭찬하지만, 진실로 그의 사람됨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 (그가) 세상 물정에 어두워 時勢에 應洽하여 변화에 적응하기에 부족하다고 여긴다. 아아! 이것이 바로 深父를 이르는 말이다. 深父로 하여금 그런 사람들에게 應洽하도록 하였다면 반드시 이와같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찍이 나는 하늘이 이 사람을 태어나게 한 것은 아마도 장수하여 그 재능을 이루어, 때를 기다렸다가 應달하여 天하에 은혜를 베풀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혹은 그의 言論을 통하여 先王의 道를 밝힘으로써 후세의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한 것이라고 여겼다. 오호! 어느 누가 알았으리오! 하늘에 대해서는 道를 다 펼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는 德을 다 베풀지 못하고 지금 세상을 떠날 줄을! 심하도다! 성인 군자를 알아보기 어려운 정도가! -----

아아! 深父여! 그 지혜는 비록 孟子를 이해할 수 있었고, 揚雄과 더불어도 거의 悔根이 없을 수가 있지만,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술도 완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夭折을 하고 말았으니 어찌 오늘날에만 알려짐이 없겠는가? 또한 장차 후세에 전해지는 바가 없을 것이다. 하늘이 이 사람을 태어나게 하였는데도 운명이 이와 같으니, 내가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다. -----

銘에 이르노니: 오호! 深父여! 아아 德을 어깨에 짊어지고 先人의 遺業을 좇았네. 그 길은 험난하고 아득히 멀었지만, 힘을 傾注하여 목표를 이루고자 하였네. 나처럼 당신의 善行을 알아주는 이 없고, 또한 나처럼 당신을 업신여기지 않는 이 없으라. 영혼이 다시 돌아온다면 그대 이곳에 돌아와 머무르리.38)

深父가 세상을 하직한 英宗 治平 2년(1065), 王安石은 2년 전부터 모친의 死後,

38) 《王臨川全集》588~589쪽: 吾友深父, 書足以致其言, 言足以遂其志, 志欲以聖人之道爲己任, 蓋非至於命弗止也. 故不爲小廉曲謹以投衆人耳目, 而取捨進退去就必度於仁義. 世皆稱其學問文章行治, 然眞知其人者不多, 而多見謂迂闊, 不足趣時合變. 嗟乎! 是乃所以爲深父也. 令深父而有以合乎彼, 則必無以同乎此矣. 嘗獨以爲天之生夫人也, 殆將以壽考成其才, 使有待而後顯, 以施澤於天下; 或者誘其言, 以明先王之道, 覺後世之民. 嗚呼! 孰以爲道不任於天, 德不酬於人, 而今死矣. 甚哉, 聖人君子之難知也! --- 嗟乎深父! 其智雖能知軻, 其於爲雖幾可以無悔, 然其志未就, 其書未具, 而既早死, 豈特無所遇於今? 又將無所傳於後. 天之生夫人也, 而命之如此, 蓋非余所能知也. --- 銘曰; 嗚呼深父! 惟德之仔肩, 以迪祖武. 厥艱荒遐, 力必踐取. 莫吾知庸, 亦莫吾侮. 神則尙反, 歸形此土.

江寧에서 居喪하고 있었는데, 知友인 深父마저 幽明을 달리하고 말았으니 그 비통함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다.<sup>39)</sup> 이 글은 冒頭에서 深父의 ‘聖人の 道를 자신의 임무로 삼고자 하는’ 숭고한 이상과 원대한 뜻을 顯揚하고, 이어서 ‘숨이 다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는다’는 自強不息의 의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그의 ‘衆人에 迎合하지 않고, 取捨 · 進退 · 去就의 기준을 仁義에 둔’ 행동거지를 稱頌하고 있다. 이러한 理想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自我修練, 올바른 행위의 표준은 王安石이 추구하던 理想 그 자체였으니, 王安石과 深父 兩人이 知己投合했음은 自명한 일이다. 또한 深父가 時勢에 迎合하지 않았기 때문에 重用되지 못하여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당시 世態를 고발하고 있다. 深父를 孟子와 比肩하면서 학문과 道義로 세상에 알려진 人材들이 死藏되는 모순된 현실을 여지없이 비판하고 있다. 끝으로 德行을 추구하며 傾注하던 深父의 生前의 모습을 회상하며 영혼만이라도 영원히 같이하고 싶은 애절한 심정을 그리고 있다.

王安石은 위에 언급한 知己 외에도 劉敞 · 劉攽 · 崔公度 · 丁元珍뿐만 아니라, 隱士 · 僧侶 등과 交友關係를 맺음으로써, 고독을 달래고 질차탁마의 伴侶로 삼았던 것이다.

### Ⅲ. 결론

본 연구의 결과, 王安石의 交友之道에 대한 관점과 그의 일생에서 知己相合했던 孫正之 · 曾鞏 · 王令 · 王回 등 몇몇 朋友와의 交友關係 속에서 표출된 朋友之情을 통하여 王安石의 진정한 인간적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

王安石은 인생에 있어서 참된 친구와의 交友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交友之道를 설정하여 이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즉 학문과 德行을 친구 선택의 주요

39) 《王臨川全集》544쪽, 〈祭王回深父文〉：嗚呼天呼！既喪吾母，又奪吾友，雖不卽死，吾何能久，搏胸一慟，心摧志朽。

지표로 삼고, 서로 切磋琢磨하며 警戒하며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상대와 交友關係를 맺는 것이 참다운 交友之道라고 여겼던 것이다. 또한 이를 실천하였는데, 실제로 王安石은 意氣投合하는 知己들과의 진실된 교제 속에서 마음을 열어 학문을 논하고 政見을 제출함으로써 삶의 활력을 얻었고 독단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날 수가 있었다.

그의 交友關係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즉 孫正之를 ‘時勢에 迎合하지 않고 자신의 확고한 主觀과 分別로 聖人の 道를 추구하며, 이를 실천화하는 인물’이라 여기고, 意氣投合하며 끈끈한 友情을 이어나갔다. 曾鞏과는 당시 世間の 그에 대한 비방에 대해 ‘문장과 논리에 뛰어나고, 名利 官祿도 도외시하는 道義心있는 사람’이라고 변호를 하였고, 晩年에 新法 시행과정에서 견해 차이로 갈등을 빚었지만 중년에 이르기까지 깊은 우정을 나누었다. 王舜과의 友情은 그 누구보다도 깊었다. 十世 年下인 王舜의 학문과 德行을 顏回에 비견할 정도로 높이 평가하여 知友로 삼았고, 妻의 사촌 누이동생과 혼인까지 성사시킬 정도로 매우 아끼는 친구였다. 王舜이 夭折하자, 墓誌銘을 지어 매우 애통해하였다. 王回와는 論學 · 論道 · 論政에 있어서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友誼에 있어서만은 始終 변함없는 관계를 유지하였다.

王安石은 학문과 德行을 兼備한 인물을 知己之友로 삼고, 切磋琢磨의 同伴者로서 자신을 警戒해주기를 懇求하였다. 또한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나누거나 書信을 통하여 솔직한 심정을 交流하는 등 진정한 交友關係를 맺었는데, 이러한 朋友之情을 통하여 王安石의 인간적인 면모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朋友之情은 知己들과 주고받은 書信과 幽明을 달리한 知己를 애통해하는 墓誌銘을 통하여 실감할 수 있다.

#### 〈參考文獻〉

- 王安石, 《王臨川全集》(臺北, 世界書局, 1988)  
 蔡上翔, 《王荊公年譜考略》(洪氏出版社, 1975)  
 東一夫, 《王安石事典》(國書刊行會, 1980)

- 王鳳岑, 《王安石人才思想論稿》(遼寧大學出版社, 1990)
- 李壁 注, 李之亮 補箋, 《王荊公詩注補箋》(巴蜀書社, 2002. 1)
- 余冠英 等 主編, 《唐宋八大家全集 · 曾鞏集 · 南豐先生集外文 卷下》  
(國際文化出版公, 1997)
- 湯江浩, 《王安石》(長江文藝出版社, 1999. 5)
- 《宋史》(中華書局, 1990)
- 미우라쿠니오 저, 이승연 옮김, 《왕안석 - 황하를 거스른 개혁가》(책세상, 2005. 9)
- 李德身, 《王安石詩文係年》(陝西人民教育出版社, 1987. 9)
- 申採湜, 〈王安石的 人間性에 대하여〉, 《東國史學》(東國史學會, 2001)
- 柳瑩杓, 〈曾鞏과 王安石의 교유〉, 《中國文學》38 (韓國中國語文學會, 2002. 11)
- 柳瑩杓, 〈《王令集 · 拾遺》에 보이는 王安石 關聯詩 작가 고찰〉, 《中國學》22輯  
(대한중국학회, 2004. 8)

### 〈中文提要〉

王安石一生交友不多, 由於他的擇友標準很嚴, 所以能够傾心相結的人很少。孫侔、曾鞏、王令、王回、劉敞、劉攽、常秩、崔公度等人, 王安石與之交遊至厚。他認為交友可以得其志氣、學其品質。他朋友間應彼此信賴、相互磨礪、規戒過錯。孫侔詩王安石早年的密友, 他們的交誼也能善始善終。王安石詩文集中保存有多篇寄孫侔的詩文, 這些詩文多敘相知相思之意。王安石與曾鞏, 以北宋文壇兩大家而各領風騷, 然彼此間的君子之交亦傳聞於時。是年兩位才子有幸結識於京師衡門, 各以文章見心, 彼此神交深摯, 不同俗流, 遂定交以結金蘭。曾王間的情誼即使到了晚年, 雖有政見的不同或分歧, 也并未中斷彼此的交友之道。王安石與王令定交甚早。王安石認為在與王令相交過程中, 就學到不少優秀的品質。王令不幸早逝, 王安石深感惋惜和悲痛, 爲此先後寫了輓詞和墓誌銘, 寄託自己的哀思。王安石給予一個布衣終生的青年詩人厚愛, 足見他對世俗的地位、名聲不屑一顧, 對知音渴求、對後進獎掖的熱忱。安石於慶曆六年在京師結識了王回, 亦會極力向曾鞏推薦, 他們幾位又成了知交。王安石與王回的往來, 從王安石文集中保存的多篇詩文可以考察清楚。他們雖然論學論道論政, 每有不合, 但他們的友誼却始終沒有改變。

關鍵詞：王安石, 交誼, 孫侔, 曾鞏, 王令, 王回, 信賴, 切磋琢磨, 警戒